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4(土)	5(日)
차차 흐려져 비 26/30℃	흐리고 비후 갠 25/32℃

News

- 혁신도시 조성 차질 우려 ②
- 남도학속 학생들 멘토링 ③
- 올림픽축구 새 감독 박성화 ⑧

Jeollado

- 그 사람-이대순 前장관 ⑦



Entertainment

- 가요계 피쳐링 열풍 ⑧
- 코믹영화 잇따라 개봉 ⑨

Books

- 잊혀진 혁명가 트로츠키 ⑩
- 잊고있었구나 우리 신화 ⑪

Wellbeing

- 식품 탐구-팔 ⑬

유형별 대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세대를 뛰어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탈레반 유화적 입장 선회

“당장 추가살해 계획 없다... 女인질 2명 수감자와 맞교환 용의”

韓-탈레반 대면협상 장소 신경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탈레반간 직접 대면 협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탈레반측이 당장 인질을 살해하지 않겠다는 유화적인 입장을 밝혀 양측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탈레반의 수감자 석방요구 불응 원칙과 군사적 수단 동원 불배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오는 5, 6일 미국과 아프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인 피랍사태가 협상 타결이나, 군사작전이나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한국인 피랍사태는 4월로 17 일째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3일 dpa통신 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강성주 아프간 주재 한국 대사와 직접 통화했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직접 대면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아마디는 이어 “병이 심각한 여성 인질 2명을 먼저 탈레반 수감자 2명과 맞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아프간 가즈니주의 탈레반 사령관 몰라 사비르 나시르도 미국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관리들과의 대면 협상 일정을 잡고 있다. 수일 내에 이뤄질 것 같다”면서 “당장 인질을 추가 살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은 협상 장소를 놓고 신경전을 벌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와하즈 병원 의료진이 3일 한국인 인질들을 치료하기 위해 가즈니주(州)에 도착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연합군 지방재건팀 사무소에서 협상을 갖자고 탈레반측에 통보했으나 탈레반측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협상을 갖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여기에 오는 5, 6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테러리스트와 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사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 대표단과 탈레반간 직접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여성 인질이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접촉이 실패로 끝날 경우 군사작전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탈레반과의 직접 협상 추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촉의 수준과 방식 시기를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답변을 피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연합뉴스

졸업성적 평균 75점 미만 교사자격 안준다

교대와 사범대를 나와도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고 교사 자격 학점 기준은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대폭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 자격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한 ‘교원 자격 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9학년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입학자를 포함한 모든 교원양성 과정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현재보다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

2009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매년 1천명 이상 탈락 예상 교육부 교원자격 개정안 입법예고

하기 위해선 전공 과목을 50학점 이상,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대나 사범대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현재보다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 성적이 평균 75점(C+ 또는 C0에 해당)

미만인 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사범대 및 사범계 학과, 교대 졸업자가 매년 2만명에 이르고 C 평점 미만자가 전체적으로 5%를 차지하는 점에 비춰 졸업자 중 5%에 해당하는 1천명 가량이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전공과목 이수 기준은 현재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으로 돼 있으나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초등 정교사(2급) 71학점 이상, 중등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등으로 대폭 높아진다. /연합뉴스

순천시 승주읍 ‘꿈꾸는 작은 도서관’ 큰 호응



여름방학을 맞아 ‘꿈꾸는 작은 도서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순천시 승주읍 평죽리 ‘작은 도서관’은 시골 어린이들의 독서실이자, 공부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책 읽고 영화도 보고 시골마을 ‘문화쉼터’

여름방학 댄 시원한 공부방 역할 ‘특출’

순천시 승주읍 평죽리에 자리 잡은 ‘꿈꾸는 작은 도서관’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 이 도서관은 인근 마을의 초·중학생들로 연일 만원이다. 130㎡(40평)에 불과한 ‘작은’ 도서관이지만 시골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마음의 양식을 길러주는 독서실이자, 훌륭한 공부방이다.

승주읍 1학년 강인한(14·순천시 승주읍 남강리)군의 방학 일과는 ‘도서관 댄’으로 시작된다. 작년 방학 때만 해도 친구들과 어울려 인터넷 게임에 정신이 없었지만 이젠 책 읽기 삼매경에 흠뻑 빠져 있다. 강군은 “집 근처에 도서관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책 읽기에 빠지게 됐어요”라고 즐거워했다.

손은하(10·승주초 3년) 어린이는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어요.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보여주니까 따로 놀러갈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준 데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작용했다. 순천시는 도농간 지식·정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순천에서만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은 모두 26개. 평죽리 도서관은 지난 4월 26일 개관했다.

10여년째 방치돼 마을의 흉물이었던 아파트 관리동을 개보수해 도서관으로 단장한 것이다. 이 도서관에는 2천5백여권의 책과 컴퓨터·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소파·휴게실 등이 알뜰하게 갖춰져 있다.

작은 도서관은 방학 이후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방방장치가 된 도서관에서의 독서와 공부의 최고의 피서이자 놀이기 때문이다.

작은 도서관은 시골 마을의 문화교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11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마을 주민 쓰시다 다예교(44)씨는 마을 학생들을 위해 일본어 회화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아동미술 전문가를 초빙해 문화 경력이 척박한 시골 어린이들의 꿈을 길러주는 프로그램도 마련중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조희순(여·43·순천시 승주읍 신성리)씨는 “작은 도서관이 마을 어린이 공동의 공부방이자 독서실로 자리잡아 가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LANEIGE